

12대총회 구성후 총무원장 선출

조계종 선거관련법 개정 내용

선거일정 명문화·선거기간 30일로 단축 종단 미등록사암 운영자 등 선거권 제한

이전에,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이전 10일부터 3일간 등으로 통일했다.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일은 11월 12일, 중앙총회의원 선거일은 10월 29일로 확정된 것. 선거일정 도표참조) 각종 선거일정에 대한 법률적인 통일은 선거기간이 다른데서 파생되는 일정 중복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법은 선거일을 "임기만료일전 30일 내지 50일"로 정하고 있어 일정의 중복이 가능했다. 때문에 총회는 선거관련 법을 개정하며 제28대 총무원장의 임기는 1994년 11월 21일부터, 제12대 중앙총회의원의 임기는 1994년 11월 9일부터 기산한다는 부칙을 각각 달아 종단 개혁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두 선거일정의 혼란을 막았다. 또 교구총회법 가운데 '총무원장선거기간 단축' 조항(제14조)도 '총무원장선거일전 15일부터 5일 중'으로 명시해 시한을 분명히 했다. 중앙총회의원선거법에서는 직능직 대표의원의 선출 시기는 "중앙총회의원 선출일 3일전"(제40조3항)으로 규정했다. 직능직 대표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직능직 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제40조6항)도 신설해 중복 출마의 부작용도 막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직능대표의원 선출 위원에 중앙총회가 추천한 총회의원이 아닌 자 6인과 재임중인 총무원장, 포교원장, 포교원장으로 한다는 기존의 법안을 고치지 않기로 했다.

총무원장 및 총회의원 선거와 관련 종단 미등록 사암사암과 종단소속임을 정관에 밝히지 않은 법인 소속 사암의 참관자, '운영자'와 '인수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

권의 제한 조치는 그간 쟁점이었던 '제2회 포함' 방침이 철회됐다.

중앙총회의원선거법과 교구총회의원선거법은 각각 제10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6호에 "본종 소속 승려로서 사실 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참관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을 제7호에 "본종 소속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를 명시했다. 또 "제1항의 6호와 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사암의 운영권을 인계한 자는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목을 제2항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5년간 피선거권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제11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2항으로 신설했다.

이같은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는 총무원장선거법의 제9조(피선거권)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종단 관장임을 정관에 명기하지 않은 법인 소속 사암과 종단미등록 사암사암의 참관주나 운영권자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권을 인계하는 사례는 원칙적으로 봉쇄됐다. 또 사암 사암의 종단등록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기자 (ytlm@buddhania.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총지종이 주관하는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제 5차 부산법회가 22일 철야정진에 이어 23일 회향법회를 연다. 밀교수행법을 통한 진호국가 기원 법회를 추진하고 있는 총지종 총지화트리원장을 만났다.



- 이번 법회는 진호(鎮護)국가를 기원하는 철야 밀교수행 정진을 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종단은 종조님의 뜻에 따라 참종이래 27년동안 진호국가불사를 지켜왔습니다. 전종도가 해마다 상, 하반기로 각 49일씩 모두 98일동안 불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 인터뷰

국난극복 부산 대법회 여는 총지종 총지화 트리원장

"국민 모두의 참회 필요한 때"

이번 참회법회도 진호국가불사로 정각사 이외의 사찰에서도 전 종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과 법회장 앞대를 종단 풍물패의 갈놀이나 사물놀이로 장식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총지종 총지화에는 호국사상이 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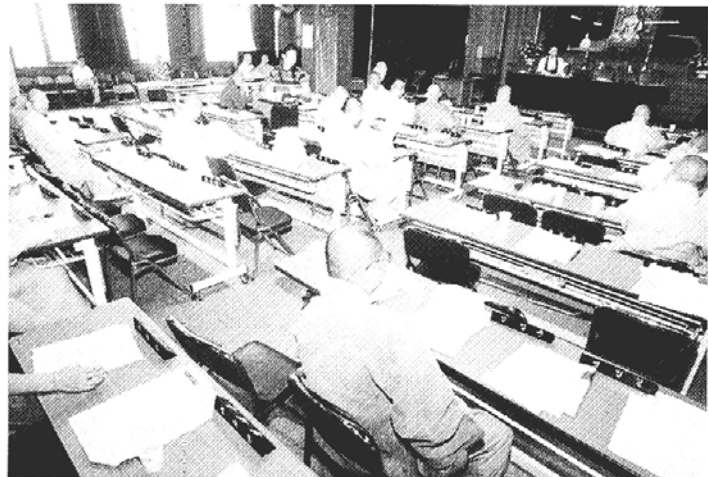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우리 종도들은 공공서원 즉, 일반적인 기도를 할때도 반드시 하는 진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국강병 국태민안 사바하, 조국평화통일 사바하"를 꼭 염송하는데요. 우리 불교사가 호국불교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속에 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참회법을 통한 국난극복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자세여야 하는지요.

▲DNF는 참으로 서민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나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과를 공부하게 했고, 이런 어려움도 내가 있기에 생긴다는 연기법도 짚어보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참회가 더욱 절실하고 국난을 무는 열쇠가 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원장님은 교계 최초로 여성 종단 대표자이신데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총지종단의 성직자로서 생활신조가 궁금합니다.

▲13살 학창시절때 밀교에 입교했으니 올해로 꼭 50년이 됩니다. 지금도 또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요 자작자수(自作自受)하고 수순하게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종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사삼법(四攝法)의 정신으로 같이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nia.com)

참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닦였다. 포교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당연히 포교부장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초청해 각 종단의 대표급들이 모이는 자리이고, 개신교 천주교의 참석자가 개신교 군종과 승종단협의회장인 김홍도목사, 천주교는 군종교구장 정병주주교여서 무가 다소 달린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 간담회는 불교계가 요청해서 열리는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안락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구심점으로서의 포교원장 공석은 보이지 않는 공백이 된다. 임기 5년인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포교법 14조) 따라서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포교원장의 공석은 불가피하다. 총회가 열리더라도 포교원장 선출안이 처리될지도 확실치 않다. 월주스님의 종하스님 추천과 관련해 새 불교운동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등 8개 승가·재가단체에서 즉각 성명을 발표. "포교원장은 천만불교도를 조직하고, 사회의 규범으로서 종단의 도덕적 지위를 고양시켜야 하는 자리"라며 '97년 불교방송 공명행진 사건에 연루되어 이사직을 사퇴한 종하스님의 포교원장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도들은 포교공석의 인사반영, 교구본사 예산 중 포교예산의 일정비율 의무 책정 등 쟁점에도 명시돼 있고 본사 포교국장회의 때마다 결의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의지와 덕망을 갖춘 포교원장을 바라고 있다. 정성훈 기자 (swjung@buddhania.com)



○7일 개최된 조계종 제133회 임시중앙총회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의 선거관련법을 개정해 총무원장선거와 중앙총회의원, 교구총회의원 등의 선거일정을 법률적으로 정했으나 또다시 성원미달로 회기를 재우지 못하고 9일 산회했다.

두 달째 공석상태인 조계종포교원장 선출이 다음 총회 때 가능하게 됐다. 포교원장 추천권자인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8일 중앙총회에 종하스님(전 불교방송 이사장)을 포교원장으로 추천했다. 정족수 미달로 회기가 유회되면서 포교원장 선출안은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포교원은 7월 19일자로 전 포교원장 성타스님의 사퇴제출 이후 두 달째 원장이 없는 상태다. 포교법에 따라 포교부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포교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공석 장기화 총회 '새원장 선출안' 상정도 못해 구심점 없어 포교행정 차질우려

지금까지는 포교원장 공석으로 포교행정의 큰 공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총무원들의 견해다. 그러나 다음 다가온 국방장관 초청 군종파견 종단대표자 간담회에 누가

또 내년도 사업계획안의 작성 등에서 역동적인 사업안의 제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포교행정 체계 강화, 군포교 활성화 등 올해 계획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성을 띠고 있지만, 불교

구분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제12대 중앙총회의원선거
선거일	11월12일(목)	10월29일(목)직선, 10월26일(월)직능간선
후보등록	11월2~4일	10월19~21일
선거기간	11월2~11일	10월19~28일
선거공고	10월14일 이전	9월30일 이전
선거인단구성	10월28~11월1일	

"저도 처음엔 형태에 집착하는 중 연기가 못마땅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사람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걸, 형태가 결정하고 있더군요..."
"...내 마음이 극락을 느끼면 극락문이 열리고 지옥을 느끼면 지옥문이 열려요..."
짜증스럽고 혹독하기만 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다. 가을의 한때, 다람쥐뼉바퀴같은 일상을 잠시 집고 이러한 대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반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목어 "불교연극 봄시다"

18일부터 24일까지 동승동 문에 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한편, 의 불교연극이 상연된다. 서울연극제의 일환으로 공연되는 '느낌, 극락같은'은 우리 시대 최고의 극작가 중 한사람이라는 이강백씨가 극본을 쓰고 '문화개릴라'로 불리는 이운택씨가 연출했다. 불상형태의 외적인 완벽함에 더 치중하는 '동연'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외적인 완벽함이란 무의미하다는 '서연'이라는 두 불상제작자의 상반된 가치관과 삶을 대립시키면서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길과 인간의 진실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묻는 연극이다.

연기경력 37년의 관록과 배우 신구씨의 연기는 압권이며 갖가지 불상으로 변하는 12명 인간코러스들의 모습 또한 장엄하고 이채롭다. 불교연극이 상연되면 불자들이 앞다퉈 보러갔으면 좋겠다. 신심을 핑계삼아 무조건 봐 주자는 것이 아니다. 좋은 작품은 격려하고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자는 것이다. 착박한 연극계에서 좋은 불교작품이 이따금씩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이 꼭 필요하다.

불교원전전문학림 三學院 '98년 2학기 원생모집 및 교육안내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심학원을 개원하고 아래와 같이 '98년도 제2학기 교육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심학원 입학에 희망하는 분과 일반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산회 향회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이념과 사업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본원 후원회인 '伽山廻向會'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 평등회향회원 월 1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회향하실 분
- 지회회향회원 '가산상'의 '연구상'이나 '학술상' 등으로 자유로이 회향하실 분
- 자유회향회원 연 50만원 이상을 분할 또는 일시분로 회향하실 분

회원이 되시면.....

- 본원의 주 목적사업인 불교대사전(15권 예정) 구입시 특전을 드리며,
- 본원의 강좌와 각종 교과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정간불과 교과매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사업의 모니터링이 되시어 본원 발전을 위한 열린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 본원으로 직접 방문 납입하시거나
- 지포(7606753) 또는 온라인구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삼학원 입시요강 및 원생모집 안내

이수대상자

1. 三藏을 체계적으로 연찬하고자 하는 비구, 비구니
2. 강원·중앙승가대·동국대학교 졸업 등의 학력을 갖춘 자
3. 석사 과정 이상으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재가자
4. 이상의 자격과 함께 본 연구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수과정

1. 예비과 (범어, 팔리어, 리트어, 한글) 어학연수 및 기초과정: 불교어학/ 일반어학/ 기초학습/ 원전강독
2. 본과 (범어, 팔리어, 리트어, 한글 원전) 근본경전강독: 아함경, 반야경 등 불교논서연찬: 팔리어논서/ 아비달마불교/ 중량불교/ 유가행불교 대승교학/ 한국불교문화연찬/ 선전연찬

신수형

'98년도 제2학기 교육안내

- 불교어학연수과정
 - 선전강독 [景德傳燈錄] 지관스님(본원전임) 매주 금 19:30~21:00
 - 한국불교교역학 [歷代高僧碑文] 지관스님(본원전임) 격주 목 19:30~21:00
 - 불교논서연찬 [攝大乘論] 이지수(본원전임교수) 격주 토 14:40~16:10
 - [中論綱] 김성철(본원전임교수) 격주 수 19:30~21:00
 - [修習次第] 허일범(본원전임교수) 격주 토 14:40~16:10
- 전형방법 서류심사, 면접
- 제출서류
 1. 스님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추천서, 사진3매
 2. 일반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사진3매
- 전형일시 원서교부 9월 15일~10월 15일 원서접수 10월 17일까지 면접전형 10월 19일
- 연구과정생 안내
 - 제출서류 입학원서 수강신청서 사진2매
 - 접수일 수시접수
 - 연구과정생은 자격제한 없음.
 - 강의기간 9월 17일~12월 5일
- (佛敎大辭典) 제1권 *근간 제2권 *근간 (15년 예정)
- (伽山學報) 창간호 / 제2호 / 제3호 제4호 / 제5호 / 제6호 -가산학회 편-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 고려편1 / 고려편2 고려편3 / 고려편4 / 조선편*근간 -이재관 저-
-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 -이재관 저-
- (南北傳六師律藏比較研究) -이재관 저-
- (伽山海印寺誌) -이재관 저-
- (韓國佛敎文化思想史) (上·下) -논찬권원회편 회-
- (信行日緖) -이재관 저-

도서출판 가산문고

문의처 :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02)765-9602~3 FAX 02)765-5673